

광주産 자율주행차 ‘카모’ 육군본부내 달린다

3.26km 구간 정류장 8개소
10인승 셔틀 하루 3회 운행
지역기업 마루이엔지 제작
“지역 군수산업 생태계 구축”



광주에서 제작된 무인 자율주행차량 ‘카모(KAMO)’. **광주시 제공**

광주가 만든 자율주행차량이 육군본부를 누빈다.

광주시는 광주에서 제작된 자율주행차량 ‘카모(KAMO)’가 12월부터 계룡대 육군본부 내에서 셔틀운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와 육군 군수사령부는 12월부터 계룡대 육군본부 내 3.26km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 시범운영 정류장 8개소를 설치하고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루 3회 자율주행 셔틀 실증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량 ‘카모(KAMO)’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설계하고 지역기업 (주)마루이엔지(광주 광산구 소재)가 제작한 셔틀버스로, 10개 좌석에 최대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광주시와 육군 군수사령부는 지난 4월

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해 군 보안문제, 경로설정과 정밀지도 구축, 자율주행시스템과 센서 최적화, 운영시나리오 작성 등을 거쳐 11월 군담당자 운영교육까지 마쳤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 8월 광주 군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군수사령부는 △다목적 셔틀운용 △표준차량 정립 △정수·발전·취사 등 20개 분야 표준모델 개발 △무기 탑재를 위한 대형 표준 플랫폼 개발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원협조를 광주시에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및 지원·육성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면서 두 기관의 상생발전을 모색했다.

지난 9월 광주시는 상호 신뢰구축을 위

해 육군 군수사령부가 주관한 ‘한·아세안 국제군수포럼’의 ‘민군 합동 방산발전 세미나 및 군수장비·물자 전시회’에 참석하게 됐다. 전시회에서는 지역기업 (주)마루이엔지가 제작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주)코비코가 제작한 폭발물방호차량과 방탄 전술차량 등을 선보였다.

또 광주시는 육군 군수사령부, 광주그린카인흥원과 함께 군수산업과 연계한 미래차산업을 육성하고 취약한 지역 군수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미래차 육성 등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월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민군협력위원회를 내년 초에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군수사령부와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군수산업의 쉬운 부분, 가능한 부분부

터 시작해서 그 범위를 차츰 넓혀가기로 합의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계룡대 자율주행 셔틀운영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 군수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겠다”며 “지역기업의 우수기술 및 제품들이 군 납품을 통해 기업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2022년도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14개 시범운영지구 중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명실공히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선도도시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협력체계 구축

모델 개발 전담팀 구성

광주시는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에 대응해 실무회의를 갖고 교육발전특구 전담팀(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광주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고 공모에 나설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모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모델 마련 △교육개혁과제 지원사업 발굴 △교육발전특구 연계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추진방향 설정, 세부 사업 발굴, 지역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내년 2월 시범운영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인재들이 광주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노병하 기자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대회에서 주요 내·외빈들과 여성기업인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소상공인 최신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제품가격 40% 이내

전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저하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노후 냉난방기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이어야 한다.

지원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받은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와 냉난방기 신제품이다.

지원금은 설치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품 가격의 40% 이내로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오는 29일까지 도내 22개 한전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main.do>)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 일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개인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등이다.

사업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 연락하면 신청서 접수와 구비 서류 발급을 도움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전 광주전남본부 에너지 효율부(062-260-5345)로 하면 된다.

최항지 기자

전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100억 돌파

전국 첫 전담조직 신설 성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청신호

전남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전남지역 기부금 모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지방재정 확충과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략적 홍보와 답례품 옵션, 다양한 기금사업 발굴, 타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여수·나주·해남·무안 등 시·군 기초자치체도 전담팀을 구성해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도 빼놓을 수 없다. 전남도는 전국민적 호감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고향사랑 응원 릴레이’를 진행한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누리집, 누리소통망, 전광판, 용산역·서울역·지하철역을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홍보를 적극 펼쳤다.

특히 기부자의 상당수가 ‘청정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받기 위해 전남에 기부했다’고 답변해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

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한 기부자는 “전남에 연고가 없지만 질 좋은 쌀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암군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관’, 장성군의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관’, 진도군의 ‘진도북놀이 체험’ 등 이색 체험형 답례품도 인기를 끌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열풍은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12월 현재 전남의 답례품 시장 규모는 3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에는 늘어나는 기부 규모만큼 답례품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급

농가별 2ha 직불금 형태

전남도가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육성과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을 지급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전남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금은 농가별로 2ha 한도에서 직불

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면적이 0.1ha 미만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3만8000여 농가에 평균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66만원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 시장

개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2001년 18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사업비는 1조2600억원에 달한다.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최항지 기자

광주 제2순환도로 각화IC 진출램프 16일부터 통제

광주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제2순환도로 각화IC 진출램프 두암→문흥 방향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각화IC 진출램프 부근 2곳의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위한 것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여름 호우로 토사가 유실

된 지점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내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통제 시점과 구간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구간의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며 두암IC 또는 문흥IC로의 우회 운행을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